

수도권 규제완화·용지난 광주시 기업유치 二重苦

광주시는 지난해 수도권 내 A사의 공장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선 데 댈진 격으로 수십 번의 설득 끝에 모셔온 기업마저도 입맛에 맞는 공장부지가 없다며 발길을 되돌렸다. 2000년대 초부터 제기돼온 광주의 공장유지 부족 우려가 현실화된 탓이다.

광주시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다 공장유지 부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역의 미래경제를 이끌 기업유치에 고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산지(山地)에도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2면〉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MOU 체결 68건 3038억원, 실투자 31건으로, 전년인 2012년 111건(MOU) 7872억원, 66건(실투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광주시의 투자유치 실적 급감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제도를 같이한다.

실제로 정부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작년 실투자 31건

전년 비해 절반도 안돼

8개 산업단지 포화

신규 산단 조성 서둘러야

내 공장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까지 통과시킨 지난해 4~5월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는 같은 해 3월만 해도 13건의 유치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2개월간 유치실적이 '0'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중인 올해엔 유치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경기도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허가된 지난 해 말 이후 3월 현재까지 광주시의 투자유치는 0건이다. 시는 그나마 지난 주 감대증권센터에서 열린 'SWEET 전시회'를 통해 중소기업 11개사와 6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여러 악재를 뚫고 기업을 데려와놓고도 공장유지를 제공하지 못해 실제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현재 광주에는 8개 산업단지(총 1170만5000㎡·공장용지)에 2369개 업체가 입주(고용인원 5만9643명)해 있으며,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입주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새 공장의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 12월 완공 목표로 35%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는 진곡산 단에는 벌써부터 공장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산단은 각종 인프라 조성 공사가 100% 완료된 이후 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진곡산단의 조기 분양은 공장유지 부족을 반영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에 공장유지 해결을 위해 수십차례 건의한 끝에 평동산단 3차 예정부지와 첨단산단 3지구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빠르면 오는 2017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장유지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 야구장 보자”…시범경기에 몰린 구름관중

한 낮 기온이 20.7℃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한 16일 광주의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두산전에 2만여명의 구름관중이 몰려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KIA는 이번 주말 2연전에 이어 18·19일과 20·21일 각각 SK, 롯데와 홈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경기 시작시각은 오후 1시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관련기사 2·14면

한 낮 기온이 20.7℃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한 16일 광주의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두산전에 2만여명의 구름관중이 몰려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KIA는 이번 주말 2연전에 이어 18·19일과 20·21일 각각 SK, 롯데와 홈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경기 시작시각은 오후 1시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관련기사 2·14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합신당 명칭 ‘새정치민주연합’

679명 발기인 대회 130석 제2당 출범…오는 20일 광주 창당대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새 정치’ 실현을 위한 통합 신당 창당에 본격 나섰다.

양측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당의 상징 색깔은 ‘바다파랑’으로 결정했다.<사진> 그동안 민주당이 사

새정치민주연합

용한 ‘태극파랑(코발트 블루)’과 새정치연합의 ‘하늘파랑(스카이블루)’의 중간 색깔로 신화·희망·탄생의 뜻을 담고 있다고 당은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발기인으로는 민주당에서 324명, 새정치연합에서 355명 등 모두 679명이 참여했다.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도 발기인당의 상징 색깔은 ‘바다파랑’으로 결정했다.<사진> 그동안 민주당이 사

이날 행사에는 총 발기인 679명 중 409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의원 등 일부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은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창당발기취지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적 시장경제 ▲정의로운 복지국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등을 통합 신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를 아우르고 모든 국민을 통합해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반독재 투쟁으로 획득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간 존엄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깔고 삶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전·광주(20일), 인천(21일), 부산(22일), 서울(23일)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대회를 조속히 열어 이달 내에 야권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는 6·4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하고 후보를 확정지를 방침이다. /박지영기자 jkpark@

천안서 개 AI 확진…국내 첫 포유류 감염 사람 전염 가능성은 낮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풍세면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염되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 추정하면서 조 개를 통한 AI의 사람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풍세면 용정리 사육단지 내 이모씨 농장에서 키우는 개 3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항원 검사를 했다.

지난 11일 나온 검사결과에서는 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H5형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번에 발병한 AI 바이러스는 H5N8형이다. 개에서 H5형 항체가 검출했다는 것은 체내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뜻이다.

당국은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씨 등 농장 관계자 등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함평군 월야면 한 씨오리 농장에서 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

다고 통보, 전남지역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60농가 닭·오리 177만 5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연철뉴스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배출량

• C200C1176cc, 150kg, 자동7단, 배관연비 11.0km/l (도시연비:9.9km/l, 고속도로연비:13.9km/l), 4등급, 배관CO2배출량 159g/km	• C200C1176cc, 150kg, 자동7단, 배관연비 11.0km/l (도시연비:9.9km/l, 고속도로연비:13.9km/l), 4등급, 배관CO2배출량 159g/km	• C200C12143cc, 173kg, 자동7단, 배관연비 15.0km/l (도시연비:13.3km/l, 고속도로연비:19.3km/l), 2등급, 배관CO2배출량 125g/km	• C200C12143cc, 173kg, 자동7단, 배관연비 14.8km/l (도시연비:13.2km/l, 고속도로연비:20.2km/l), 2등급, 배관CO2배출량 133g/km	• C250 2.496cc, 162kg, 자동7단, 배관연비 10.0km/l (도시연비:8.9km/l, 고속도로연비:12.5km/l), 4등급, 배관CO2배출량 176g/km	• C63 AMG Edition 507 4.203cc, 180kg, 자동7단, 배관연비 8.9km/l (도시연비:5.4km/l, 고속도로연비:10.0km/l), 5등급, 배관CO2배출량 284g/km
--	--	--	--	---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환경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